



홍준표·이철우, 갑진년 희망의 배 ‘뚝’ 올렸다

홍, 한반도 3대도시 위상 꼭 찾는다
이, 대한민국 살리는 경북시대 선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갑진년 새해 희망에 뜻을 올렸다.

홍 시장은 올해 한반도 3대 도시 위상 되찾고, 이 지사는 안전 최우선 정책을 펼친다는 각오를 다졌다.

홍준표 3대 도시 위상

대구시는 2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구청장·군수, 시의원, 기관·단체장, 지역 원로, 초청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하는 '2024년 대구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신년인사회에는 축하공연, 2024년 시정비전을 담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신년사와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축사, 조재구 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의 건배사로 축하했다.

250만 대구시민의 새해 소망과 염원을 담아 대구 굴기의 완성과 미래번영 50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는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시정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어 근본을 바꾸는 대개혁을 성공시켰다”며 “올해는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군사시설 이전, 산업구조 개편 등 지난해까지 완성된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틀을 빈틈없이 채워 나간다.

대구굴기의 핵심 정책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한 해로 선언했다.

홍 시장은 간부공무원과 함께 오전 9시 새해 총흔 탐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철우, 안전 최우선 정책

깊은날 이 지사도 청내 ‘대구·경북 상생’의 숲에 있는 경북도 순직 공무원 추모비를 찾아 참배하고 직원 200여명과 검무산 정상에 올라 2024년 경북의 힘찬 비상을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했다.

이 지사는 순직공무원 추모비에 헌화·참배한 뒤 방명록에 ‘고귀한 희생 헛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자리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안전행정을 출범시킨 만큼 소방과 함께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선8기 3년 차를 맞아 허례허식을 견어내고 모든 분야에서 민간과 협력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도정 역점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를 일궈내며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연다는 각오다.

새해에는 극한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고자 산사태 방호 기능을 갖춘 다목적 마을회관을 신축해 우선 대피장소로 지정하고 마을 이동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이철우 지사는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라는 아젠다를 만든 주역도, 윤석열 정부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함께 설계한 파트너도 우리 경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경북의 더 넓은 성장판을 만들었다면 민자 활성화 등으로 올해는 그것을 제대로 살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경북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제대로 살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경북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성용·조여은 기자

윤, 이재명 피습에 “결코 있어선 안될 일”...

깊은 우려 표명...병원 이송·치료지원 지시
“어떤 경우에도 이런 폭력행위 용납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와 치료 지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소식을 듣고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폭력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중 신원 미상의 남성에 흉기 당했다.

이 남성은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접근해 사인을 요청한 뒤, 이 대표의 목 부위에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약 20분 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경정맥 손상과 대량 출혈이 우려된다는 의료진 소견이 나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태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보수 첫 발’ 대구를 찾은 가운데 경찰 등이 경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을 축소했으며, 대구경찰은 신변보호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비대위원장이 KTX를 이용해 이날 오후 동대구역에 도착할 때쯤 역사 인근에는 경찰기동대 일부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비대위원장 경호에는 대구경찰 240명이 투입됐다.

이 대표 피습 여파로 신변보호 7개팀 70명이 한비대위원장에 대한 밀착 보호에 나섰다. 기동대 2개 중대 120명 등이 대기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구 방문 일정을 일부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저녁(오후 6시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2024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석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한다”며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황태용 기자

홍준표, 이재명 피습 “증오의 정치 종식” 촉구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죽고죽이는 검투사 정치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흉기

를 든 괴한에게 피습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패유를 기원하며 증오 정치의 종식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신년 첫 날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하는 증오의 정치시대를 열었다”며 “총선을 앞두고 진영대결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발생한 이런 사태는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신호탄 같다”고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마치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표가 피습당한 사례를 연상시킨다”며 “증오의 정치, 독점의 정치, 극단적인 진영대결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통합, 동서통합, 좌우통합의 정치를 추구해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죽고 죽이는 검투사 정치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3일 오후 만촌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대구상공회의소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3일 오전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4 달성군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함께라서 용기 나는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새롭게 꿈꾸고
힘차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의 2024년을
삼성이 응원합니다

동구청, 동구청년센터+he꿈 확장 이전·개소

동구청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마련한 '동구청년센터+he꿈' 확장 이전·개소식을 가졌다. 동구청년센터+he꿈은 효목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효목동 복합근린커뮤니티센터로 확

장·이전하게 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청년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청년 활동 활성화 및 취·창업 역량 강화,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성장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피습’ 이재명, 경정맥 손상 서울대병원서 수술...

부산대병원서 응급 치료 서울대병원서 수술 예정 민주당, 이번 사건은 테러 경찰 의혹없이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방문 일정 도중 신원을 알 수 없는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다.

이 대표는 목 부위의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모든 당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함이 들어설 터를 둘러보던 중 과한에게 피습당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던 중이었고, 한 남성이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청하며 다가갔다.

당 관계자가 접근을 제지했지만 이 남성은 기습적으로 흉기를 꺼내 이 대표 목 부위를 찔렀다.

해당 남성은 이 대표 지지자인 양 '나'는 이재명'이라고 적힌 머피를 쓰고 '총선 200석'이 적

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 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응급 치료를 마친 이 대표는 오후 1시께 부산소방 헬기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관찰중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상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서울대병원 후송 후 신속하게 수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후송 및 수술은 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용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일단 총선을 99일 앞두고 발생한 피습 사건에

관장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 일정을 소화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할 예정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소식을 듣고 "대표를 모시고 가서 수송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위해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일정도 일부 취소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가동한 '2+2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주로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대병원에서 개최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하자 "동요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며, 3일 오전 10시 30분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상태와 당 운영 관련한 사항들은 지도부와 신속하게 파악 및 협의해 내일 의총에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이 대표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자세한 상태와 향후 치료 방안은 병원 도착 후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요하지 마시고, 대표의 쾌유를 비는 발언 이외의 사건에 대한 정치색 해석이나 법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으로 아직 신원과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다.



동구청, 갑진년 새해 시무식 힘찬 출발 동구청은 2일, '2024 시무식'을 열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동구는 청룡의 힘찬 기운을 받아 대구 경북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동구 비상(飛上)의 해'를 만들어 나간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2024년은 동구가 더 멀리, 더 높게 비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창의성을 발휘,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한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진=동구청제공)

서문·칠성 야시장 봄에 다시 만나요!

대구 밤 관광명소 서문·칠성 야시장 재정보... 임시 휴장 새메뉴로 단장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서문 야시장과 칠성 야시장이 1~2월까지 두 달간 휴장 후 3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을 추진한다.

지난해 3월 31일 재개장 이후 127만 명이 다녀간 서문·칠성 야시장은 '2023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다.

서문시장은 지역의 핵심 관광명소를 추진하는 문체부의 '한국 대표 전통시장(K-마켓) 10선'에 선정되는 등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대표 야간명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장 7년이 경과된 서문 야시장은 젊은층과 관광객이 주말에 많이 찾는 핫플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다.

칠성 야시장은 징검다리 등 신선 천수공간을 활용한 가족방문 명소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2월 두 달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휴장한다.

앞으로도 매년 휴간기 동안은 타지역 야시장들처럼 재도약을 위한 휴장한다.

서문·칠성 야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1월 꿈과 열정을 펼칠 야시장 셀러들을 공개 모집한다.

서문 야시장 30명(푸드트럭 6명, 음식매대 24명), 칠성 야시장 20명(음식매대 20명) 등 총 50여 명의 야시장 운영자를 모집한다.

야시장 셀러 모집은 1차(서류심사), 2차(품평회심사)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모집공고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누리집(www.dtmsa.or.kr)을 통해 올해 1월 중 공고 예정으로, 선정된 셀러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

3월 재개장 시 서문 야시장은 기존의 일반매대와 함께 플라마켓영업뿐만 아니라, 푸드트럭을 점차 늘리면서 젊은층과 외지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 특화 관광상품 및 메뉴 개발로 핫플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칠성 야시장은 가족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개발과 야매페스티벌 등 참여형 이벤트 및 공연 확대로 야시장별 특성을 살려 운영한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두 달간의 휴장기간을 통해 서문·칠성 야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 야시장이라는 명성을 이어 나가도록 한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경북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 전국 최고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 탄소중립 사업 본격화 국비 77억9천만원 확보

경북도의 녹색융합클러스터·탄소중립 사업이 도도하게 뜰 전망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탄소중립 대응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도민 탄소중립 참여 등 4대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탄소중립 관련 국비 확보에 나서 환경부 공모사업 6건이 선정됐다.

전년에 비해 4건 45억9000만원이 늘어난 77억9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구미 국가4산단 일원이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서도 포함 등 9개 시군(27억)이 선정, 전국 59개 시군(189억) 가운데 경북이 가장 많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및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 사업, 지역주민 참여공동체의 자발적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사업, 시군의 탄소중립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초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됐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올해 4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탄소중립 대응' 분야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50 경북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경북탄소중립추진단을 운영해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북탄소중립지원센터에는 4억원, 시군(포항·구미·의성·상주) 기초탄소중립지원센터에는 센터별 2억원씩 지원한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광역 환경교육센터와 기초 환경교육센터(포항·안동·경주·영양)도 운영·지원한다.

기후변화·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도 펼쳐 17억원(포항·김천·구미·칠곡)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경북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022년 6월부터 추진한 첨단 전자산업 지원 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지난해 6월 사업대상지로 선정, 올해는 포항의 배터리와 구미의 반도체 산업을 연계한 '녹색융합'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도민 탄소중립' 참여 분야에서는 20억원을 들여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한다.

시군별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트를 양성해 도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유도한다.

환경부의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도내 5개 시군(포항·구미·상주·의성·예천)이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9월 최종후보지(전국 10곳)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의한다.

조현에 경북도 환경산업지원국장은 "지난해 탄소중립 사업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는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도민 먹거리 안전 사수 행정 총동원

2023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공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실시한 2800여 건의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동, 구미, 포항 소재 도매시장 반입 농수산

물 총 1807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해 쪽파 등 15건의 부적합을 확인,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 부적합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시군에서 의뢰한 농수산물 335건의 유해물질 검사 결과 오미자 1건의 부적합을 확인해 의뢰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2023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로

전 국민이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연구원은 도민 불안 해소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학교 외에 사회복지시설에도 추가 확대하여 방사능에 민감한 전 계층의 급식재료 안전 확보에 힘썼다.

이창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농수산물 유해물질 분석으로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jm.net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밤 안동 비닐하우스 화재...3동 타 3000만원 피해

지난 1일 밤 11시18분경 안동시 풍산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46분 만에 꺼졌다. 비닐하우스 3동이 타 소방서 추산 3000만

원의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입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직자 29만명, '가상자산 포함' 재산신고해야

정무직·4급 이상 공무원 등 3월 말까지 통합 공개할 예정 인사처, 이달중 설명회 개최 24시간 '챗봇' 운영도 나서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 약 29만명은 내달 말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새달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재

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9만명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여기에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있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도 신고 대상이다.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한다.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오는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될 예정이다.

소속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사항 검색도 가능해진다.

재산심사는 신고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다.

만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인사처는 이달 중으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찾아가는 재산신고설명회'를 진행해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증가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통해 24시간 응대할 계획이다. 조민경 기자



경북경찰, 요양원 배식봉사

경북경찰청이 예천군에 위치한 요양원을 방문, 배식 봉사 후 목욕용품 등 위문품을 전했다. 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로 어르신 29명이 생활하고 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경북지역은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은 만큼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어르신뿐만 아니라 경북도민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새해에도 경북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대구교육청, 학교 석면해체제거 263억 투입...겨울방학 기간 공사 추진

학교 무석면 면적 94.2%수준 무석면 면적 96.6%까지 올려

대구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겨울방학 중 지역 52개 학교를 대상으로 2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추진한다.

대구지역 학교의 무석면 면적은 94.2% 수준이나 이번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추진해 무석면

면적을 96.6%까지 올린다.

대구교육청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해 석면해체제거 우수업체를 선정한다.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 농도측정, 폐석면처리용역 등을 분리 발주해 업체들 간의 담합 및 부실공사를 방지한다.

학부모, 시민단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해 사전정소 점검, 비닐보

양 점검, 잔재물 검사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공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석면해체제거 관계자 교육, 감리인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교육부 매뉴얼에 맞게 감리 및 지도점검도 강화해 안전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청은 교육부 계획보다 2년 앞당긴 오는 2025년까지 석면을 모두 제거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대구교육청,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입학등록 필요사항 확인

대구시교육청은 2,3일 이틀간 대구지역 공립 학교 236개교에서 초등학교 의무취학의 첫 단계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일제히 실시한다.

올해 대구지역의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만 6세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아동(입학연기, 유예 등)을 포함해 1만6966명(지난해 11월30일 기준)이다.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배부받은 취학통지서를 확인하고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과 함께 참석해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학대상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예비소집에서 늘봄학교 관련 기초조사도 한다.

조사는 예비소집에 참석한 신입생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OR코드를 통해 자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올해 늘봄학교 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예비소집은 입학등록뿐만 아니라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자녀와 함께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경북교육청, 교직원 휴게시설 늘린다

96개교 8억2800만원 지원 3월 중 세부계획 안내 예정

경북교육청이 올해 학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96개교에 8억2800만원을 지원한다.

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는 지난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사근로자 20인 이상인 학교나 교육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학교(기관)라든 2인 이상 청소년, 당직 전담원 등이 상시 근무하면 설치 대상이다.

경북에서 올해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대상 학교는 모두 96교로, 교육청은 신규 설치비와 기

존 노후 휴게시설 리모델링 경비를 지원한다.

학교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내내 사업 대상 모든 학교에서 휴게실이 갖춰지게 된다.

교육청은 학교가 사업 추진 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와 휴게시설에 갖춰야 할 시설과 기구 구비 조건을 필수 권장으로 구분해 안내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에는 설치 희망학교 280교에 22억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교육청은 오는 3월 중에 예산 교부와 세부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청도군의의회

청도군의의회
GYEONGDO GUN COUNCIL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의의회 054-370-6404

한상용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장 선출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는 2일 한상용 한신특수...

가는 4년이다.

한 회장은 "벼랑 끝에 몰린 섬유패션산업을...

고 말했다.

한 회장은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Table with market data including 코스피, 코스닥, 엔화, 유가, 환율, 금(금) prices.

www.dgy.co.kr

대구 아파트 매매
공공 얼어 붙었다

8개월 만에 월 2000건 밀돌아
2건 중 1건 '3040세대' 대부분

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8개월 만에 월
2000건을 밀도는 등 얼어붙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현황 자료를 보
면 대구의 11월 아파트 매매거래는 1889가구로...

지난해 4월(2052가구), 1년 10개월 만에 넘어
선 월 2000건 거래가 8개월 만에 무너졌다.

다만 2022년 11월(777가구)에 비해서는
143.1%(1112가구) 늘었다.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가 420가구로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북구(346가구), 수성구(322가구), 달성군(312
가구), 동구(277가구), 중구(84가구), 서구(76가
구), 남구(60가구), 군위군(2가구) 순이다.

규모별로는 20㎡ 이하 8건, 21~40㎡ 31건,
41~60㎡ 625건, 61~85㎡ 1006건으로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1660건으로 전체 거래량(1889
건)의 88.4%를 차지했다.

86~100㎡ 41건, 101~135㎡ 156건, 136~165㎡
13건, 166~198㎡ 6건, 198㎡ 초과 3건으로 나타
났다.

매입자 연령대는 30대가 500건으로 가장
많다.

40대 473건, 50대 426건, 60대 272건, 70대 이
상 112건, 20대 이하 92건, 기타 14건이었다.



경북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뿌리뽑는다

서문시장4지구 시장정비사업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지역 1군기업 (주)서한이 서문시장4지구 재개발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서문시장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1일 대의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2023년 1월 10일 1차 입찰에서부터 5월 4일 4
차 입찰까지 나서는 시공사가 없어서 지난 4차
례 유찰을 겪었다.

시공사 문제가 1년간의 노력 끝에 지역의 1군
업체가 선정된 셈이다.

2016년 화재 발생 이후 7년간 지지부진 조합
원들의 애를 태우며, 대구 지역사회 문제 중 하나
로 지적된 서문시장4지구 시장정비 사업이
본격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의원회에서는 시공 입찰가가 650억으로
가장 높은 서한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참여업체 중에 서한이 재무건전성이 높은
게 이었다.

유일한 1군업체로서 부동산시장이 극심한 침
체를 겪고 있는 와중에 시장정비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신뢰도 측면에서 대의원들이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당일 참석한 대의원들
의 의견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공사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도 시공비보다 믿을
수 있는 1군기업인 서한을 선택한 요인으로 보

인다.

일부 상가를 분양, 공사비를 총담해야 하는
데 분양성을 높이는 데도 시공사의 인지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
적 진행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시공사 선택
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현실적인 이유로 평
가된다.

실제 서문시장 4지구는 그동안 시공사를 구
하지 못하여 사업이 오랫동안 정상화되지 못
했다.

대구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와 지속적으로 인
상되는 공사 인건비 및 마감자재비로 시공업체
들이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탓이다.

무엇보다 다른 3개 지구가 장사를 하고 있는
시장 한복판 위치라는 점과 노점 등의 문제로
공사 진행에 여러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발
적 비용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1군 업체들이 꺼
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지난 1년간 4차례 유찰
되며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조합 측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가능
했지만 시공사 선정의 객관성을 위해 지역
의 기업을 중심으로 참여 요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다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대의
원회에서 참석대의원의 과반수를 넘기며 우선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밝혔다.

화성산업 환경분야 강점 살려 해외 진출 한다

LH 파키스탄 주거환경개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민간사업자 우선협상자 선정



원내 사진은 이종원 화성산업 회장

화성산업이 한국도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파키스탄 카라치 주거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국
제감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에서 우선협
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은 LH가 파키스탄 카라치 내 슬럼지역
30곳(약 53만명 거주)을 선정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
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LH가 주택 개보수
지원, 공원조성, 가로등 및 정수시설 설치 등 주
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한다.

10년간 약 134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여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사업이다.
사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효과를 물론
공동개발협약으로 민간 기업의 탄소배출권 사
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모
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는 총 374억원으로 화성산업은 현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시공을 전적으로 담당
한다.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9%의 지분을 확보, 향
후 10년간 예상되는 탄소배출권 확보량(총 134
만톤) 중 지분율만큼의 탄소배출권 관련 수익
을 기대하게 되었다.

화성산업은 지난해 8월 제일엔지니어링과 컨
소시업 구성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12
월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보, 올해 2월 공동개발

협약 체결까지 파키스탄 현지 상황 파악 및 파트
너 구축, 세부적인 계약 관계 조율 등을 진행하
게 된다.

이종원 화성산업 회장은 '이번 파키스탄 탄소
배출권 사업은 LH의 K-건설 사업의 새로운 모
델로, 향후 파키스탄 전역으로 확대 될 예정이여
서 화성산업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 진출로 연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협상자 선정은 지역의 방전리메립장 시설
시공과 운영 등의 경험과 실적 등 환경분야에 대
한 강점이 우선협상자로 선정, 기여한 바가 크다.

이와 별개로 중남미 개발도상국 니카라과 탄
소배출권 사업 관련, 지난해 10월 니카라과 마
나과시장이 당사를 방문했다.

지역의 환경 관련 시설 등을 둘러보는 등 지속
적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성산업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현지
실사에 당분간 전력,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틈새
시장 개척으로 안정적인 해외사업 수주에 주력
한다.
조여은 기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
해 건설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
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올해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현장에 전면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1월1
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공공발주공사 1억원 이상, 민간발주공사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
항은 공제회 누리집(https://ecard.cw.or.kr) 또는
콜센터(1666-511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Large advertisement for 'Living and Working in Daegu' (살고사는 대구) featuring illustrations of people and text about quality of life and population policy.



경주, 경북도 중기 육성시책 평가 2년 연속 '우수상'

경주시가 경북도에서 주관한 '2023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 실적,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 경상북도 육성시책 참여 실적 등 5개 분야 14개 지표를 심사했다. 시는 경주기업지원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지역 운전자금 및 한수원 상생협력기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올해 신규로 실시한 골든기업 선정·육성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시행했다. 경북비즈니스와 시·군 파트너링 협력사업 등 경북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주낙영, 새해 첫 발걸음 총훈탑 참배...



주낙영 경주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내 일천홀에서 시무식을 갖고 힘찬 시정출발과 경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경제 다시 살아나고 시민의 살림살이가 한층 나아지는 희망찬 새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2일 오전 총훈탑 참배를 시작으로 2024년 새해 업무에 나섰다.

주시장은 경주 황성공원을 찾아 총훈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참배에는 김석기 의원과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보훈 및 기관단체장들도 참석해 갑진년 새해 힘찬 시정출발과 경주의 발전을 함께 기원했다.

주시장은 "갑진년을 맞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시민의 살림살이가 보다 나아지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경주시민 모두가 환하게 웃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주시장은 시무식에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공약추진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적극 반

영, 시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시정을 펼쳐나가자"고 했다.

그는 "경주시는 더 이상 관광문화 분야에만 국한된 도시가 아닌 행정·경제·사회·복지 분야 등 다방면으로 뛰어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주시 총훈탑은 6·25전쟁 당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경주 관내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1986년 5월 16일 조성된 곳으로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의 위패 3983위가 봉안돼 있다.

외동읍 7번 국도 선형개량공사 마무리

사업비 8억 큼كب 구간 사고 위험 구간 2곳정비

경주시가 선형불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외동읍 7번 국도 구어교차로에서 구어2일반 산단까지 위험 구간 2곳을 개량했다.

기존 도로는 협소한 도로폭과 큼كب로 인해 차량통행 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던 탓에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구어2일반산단 및 들밭공단을 오가는 대형 차량들과 인근 주민들의 주 통행로로 산단입주 기업과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사업비 8억원을 들여 도

로 선형개량 사업에 나섰다. 토지 4필지 보상 및 소교량 1개소를 확장하고 큼كب구간을 직선화하며 선형불량 2곳의 공사를 지난 달 모두 마무리 했다.

산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이번 도로 선형개선사업으로 인해 산단 입주업체 및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위험해소는 물론 도로 기능 향상으로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주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주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체와 시민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 기업체와 주민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자과학연구원, 미래 과학인 육성 지원

경주시 3개 초등학교 사랑의 교육물품 전달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 양성자과학연구원(단장 이재상)은 연구단은 지역 내 초등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천읍 3개 학교 전교생에게 교육물품을 27일에 전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했다.

교육물품 기부행사는 2020년부터 시작했다. 연구단 인근에 위치한 건천·천포·모량초등학교

교동 3곳에 교육물품을 전달했다. 이재상 단장은 "교육물품 기부를 통해 지역학생들이 과학에 좀 더 친숙해지길 바라며, 나아가 양성자가속기와 같이 지역의 대형연구시설에 관심을 가져 과학자의 꿈을 키워나가기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양성자과학연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아이들의 꿈을 응원한다.

양성자과학연구단은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멘토링'과 '찾아가는 원자력 과학교실' 등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주엑스포, 갑진년 행운이 주렁주렁

'갑진 행운' 이벤트 당첨 3가족에 럭키박스 증정



2024 갑진년 새해 첫날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찾아 온 3가족이 새해 첫 행운을 가져갔다.

경주엑스포공원은 1월 1일 공원을 방문한 △새해 첫 입장객 △첫 '용띠' 입장객 △이름에 '용'자가 포함된 첫 입장객 등 3명에게 '럭키박스' 증정과 함께 동반자들이 무료입장하는 '갑진 행운'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결과 2024년 첫 방문객으로는 지역주민인 이명우(66)씨였다. 그는 9시 50분께 혼자 경주엑스포대공원에 도착, 첫 방문객의 행운을 가져갔다.

이씨는 지역주민이라 방문관광단지에 운동하러 왔다가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방문했는데 첫 방문객이 됐다. 2024년 올해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용띠' 입장객의 행운은 김포에서 온 이은정(25)씨에게 돌아갔다. 이은정씨는 이벤트 내용을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첫 용띠 방문객으로 확인돼 선물을 받는 행운을 얻었다.

이은정씨는 "새해를 받아 경주를 오게 되고, 첫 방문지로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찾았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며 행운기쁜 사연을 전했다.

이름에 '용'자가 포함된 첫 입장객의 행운은 서울에서 온 아들, 딸 남매를 둔 이빠김범용(46)씨다.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서온 경주 가족여행 중 공원을 방문했다가 행운을 잡았다.

김씨는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경주타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기분 좋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제공

경주 전통시장 상인 추위녹여...사업비 12억원 확보

2024 새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5곳 선정

경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5곳이 선정, 총 사업비 12억을 확보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중 △황남상가시장은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중앙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 △감포시장 등 4개 시장은 시장경쟁력파키지 지원사업 △성동시장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각각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에 앞서 기반시설을 갖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혁신과 상인조직 향상 등으로



시장 자체 역량을 한층 더 높인다.

황남상가시장은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인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정결, 상인역량, 안전관리 등을 중점 수행한다.

디지털 전통시장은 온라인 전용상품 발굴하고 입점지원, 배송 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

등 자생력 기반의 디지털 종합지원 사업이다. 중앙시장은 2년간 3억 5천의 사업비가 투입, 전통시장의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선도 시장으로 거듭난다.

감포·성동시장, 불국사·황남상가시장은 시장경쟁력파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1억 원의 예산으로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및 시장·배송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받아 자생력을 강화한다.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전통시장 내 전기시설이 낙후된 개별점포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동시장은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Advertisement for the 2025 APEC Summit in Gyeongju. It features the Gyeongju logo, the text '2025년 APEC 정상회의', and a large calligraphic slogan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We hope for Gyeongju's location). The background shows a traditional Korean palace at night.

포항 올진 청도 칠곡



청도군, 새해 해맞이 행사

청도군은 1일 오전 7시 30분 덕정산 생태공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청도를 기원하는 '2024년 갑진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가졌다.

해맞이행사는 청도산악회(회장 권영득)가 주최하고 청도군인명구조대(대장 이영호)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기관·단체장들을 포함한 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 첫날을 알리는 차산농악 공연, 새해 소망 성취를 기원하는 소원문 쓰기, 신년 메시지 전달, 청도군민세상장떡국 나누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모든 주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오직 군민만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조여은 기자



칠곡군, 을지연습 최우수

칠곡군은 2023년 을지연습 경상북도 시·군 평가에서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해 전사업무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종합훈련이다.

이번 최우수 표창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을지연습에 대하여 경상북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체편성 훈련,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테러대비 실재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결과이다.

칠곡군은 6년만에 실시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칠곡경찰서와 차량통제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통제 훈련으로 실시된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대테러 합동 진압훈련'은 120여대 12대대, 경찰특공대 50사단 화생방지원대 등 200여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조미경 기자

창의·융합·혁신...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로

포항시, 올해 시정 운영방향 미래 100년 꿈과 도전이 실현 전 분야 동해안 거점도시 목표

"2024년 창의·융합·혁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미래가치 확장, 민생 활력 제고, 도시 품격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먼저 지난해 △7조 4000억 원 대규모 투자유치 △국가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단지 지정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예타 통과 △글로벌 대학 30 포스텍 선정 △수서행 SRT 개통 등 포항시가 시민과 함께 거둔 혁신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이뤄낸 성과를 토대로 창의적 인재들의 혁신적 사고를 융합해 미래 100년을 책임지고 시민 모두의 꿈과 도전이 실현되는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24년 슬로건인 '창의, 융합,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가치 확장 △민생 활력 제고 △도시 품격 향상이라는 3대 분야의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포항시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잠재적 미래가치를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 등을 발판 삼아 블루밸리 국가산단 관리 기본계획 조기 변경(페스트트랙)과 공업용수 적기 공급,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배터리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이차전지 산업진흥원 설립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국내 최대 양극재 100만 톤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이차전지 산업 메가



클러스터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분산 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포항시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K-수소 경제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융합기술산업지구를 거점으로 바이오기업들을 집적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에 매진해 '바이오보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블루밸리 산단 내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캠퍼스 조성 등 경북형 디지털 혁신 거점 지정 등을 통해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으로 산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산학협력관 설립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실현되는 영일만 벤처 밸리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간다.

포항시는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민생 활력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최고의 민생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한다.

1200만 평에 달하는 포항의 산업단지가 대부분 분량이 끝난 상황에서 영일만 4월반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2단계 등을 조기 공급하고, 신산업 개발 전략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첨단산업 대규모 수요에 맞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어간다.

또한 올해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착공과 함께 선제적인 국제행사 유치, 관리 운영 내실화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MICE 산업을 육성해 많은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나간다.

이와 함께 노후 산단을 친환경·디지털 산단으로 전환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죽도시장 방문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농촌과 어울림 맞춤형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세대별 맞춤형 복지 대응과 지방 공공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도 더욱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 인프라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최고 현안인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지방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에 포스텍 의대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글로벌 대학 30에 포스텍이 본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한동대 지정에 전력을 다해 대학이 지역문제 해결과 지방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포항이 지방시대를 견인하는 대표 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시 전체를 푸른 생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웨이는 중단없이 계속 추진해 녹색 보행망을 확장하고, 에코빌리지, 그린바이오파크를 친환경 시설, 주민 공감, 충분한 인센티브라는 원칙에 따라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영일만대교가 올해 터키 발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동빈대교도 조속히 준공해 '경제·관광대교'를 완성한다. 형산강 국가하천 정비, 오천 행사담·도심 저류지 확충 등 근본적인 재난 대응 인프라도 꼼꼼히 챙긴다.

법정 문화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 2관 건립, 202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등과 함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늘려간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동해안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청도군 농업인대상 수상자 선정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가공 어려운 농업환경 극복해내

청도군은 지역농업 및 농촌발전에 공헌한 우수 농업인 3명을 2023년 청도군 농업인대상으로 선정해 지난해 29일 군정 중무사에서 시상했다.

청도군 농업인대상 수상자는 '원예부문'에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 우수한 재배기술로 생산량 및 당도를 높여 연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이정희(65세, 화양읍) 씨를 선정했다.

"특작부문"에 산딸기 생산기술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로 고품질 산딸기를 생산하여 연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선도농가에관기

(61세, 매전면) 씨를, "농산물 가공부문"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발효제품 개발 및 고품질 발효초 가공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일본 등 해외 수출시장 확보로 연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생생초 대표 권승혁(66세, 화양읍) 씨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농촌인구 고령화 등 새로운 여건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가공 등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농업인 대상 수상자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우수 농업인을 꾸준히 발굴 시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칠곡군, 일자리 창출 '대상' 영예

경북도 시·군 평가 어워드 기관 노력도 등 부문 호평

칠곡군은 '2023년 경상북도 시·군 일자리창출 평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는 매년 22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고용지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칠곡군은 일자리 창출 및 기관노력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중장년 취·창업지원체계 구축, 첨단 농기계 실증랙팹토리 공모사업 선정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변화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고용률 1.1% 상승, 취업자 수 1800명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고용지표 상승을 이끌었다. 조미경 기자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행복 의성교육

지표

- 배움이 있는 교실
- 행복이 넘치는 학교
-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방향

- 삶과 배움이 함께하는 학교
-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 다함께 누리는 교육 복지
-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원

영덕 울릉 청송 영양



윤경희 청송 군수는 3일 오후 청송군 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올해 첫 경매를 참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청송소방서 갑진년 사무식

청송소방서는 2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갑진년(甲辰年) 첫 업무 시작을 알리는 사무식을 가졌다.

청송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힘쓰고 더 나은 한해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 사무식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와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하는 등 재난 현장에서 활약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에 대한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한해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윤태승 소방서장은 "지난 한 해는 2022년 7월 합천 출발을 시작한 청송소방서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은 매우 뜻깊은 해"라며 2024년 갑진년에도 선제적 예방활동과 빈틈없는 대응태세 확립으로 더욱 신뢰받는 청송소방서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울릉도 밥상' 책자 발간

울릉군 지난해 12월 28일 울릉도 나물 음식문화를 담은 세상에 없는 특별한 한끼 '울릉도 밥상'을 발간했다. '울릉도 밥상'은 향토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오래된 맛을 새롭게 알리는 데 의의를 두었으며, 울릉도의 세월이 담긴 음식들과 역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기록서다.

'울릉도 밥상'은 지난 1년간 지역 어르신 구술채록, 현장 전수조사, 음식 촬영 등 여러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군에서는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역 도서관에 배포해 누구나 울릉도 음식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윤환 기자

영양군 해냈다...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대상지 확정

역대 최대 2조원 국책사업 郡 행정력 집중 유치 결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 대상 후보지로 영양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예비 후보지로 경북은 영양군(1GW), 봉화군(0.5GW), 전남 곡성군(0.5GW), 충남 금산군(0.5GW)을, 우선 후보지로 경남 함천군(0.9GW), 전남 구례군(0.5GW)을 선정했으며, 6개 지자체 모두 사업자에 선정되어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된다.

영양 양수발전소는 국내 최대규모(원전 1개소)인 1GW로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약 2.1조원

의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일원에 상·하부 저수지 및 발전설비, 이주단지 조성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영양군에 신규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다양한 파급효과와 양수발전소를 연계한 개발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건립으로 정규 일자리(150여명) 창출, 지역발전 지원금(936억원)을 활용한 주민복지사업 재투자, 순수 1.5조원 규모의 건설비 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매년 14억원의 장기세원 확보, 양수발전소 주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시설 개발로 신규 관광명소 확보(매년 10만명 이상 방문객)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양수발전소 최종 후보지 선정의 결정적인 이유는 전국 최대규모인 최적의 입지 조건과 최고의 주민수용성에 대한 산자부의 객관적 평가 결과라 보고 있다.

특히 민간 주도의 '범군민 유치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전방위 유치 홍보활동 전개로 차별화된 유치활동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군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참여율 87.47%)과 주민여론조사(찬성률 96.9%)를 통해 압도적인 유치 지지를 보여주었다.

군에서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비롯

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며, 특히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대상지 선정으로 '새로운 영양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신 정부 및 경북도 관계자, 박형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민관이 똬뚝 뭉쳐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영양군민들, 특히 일월면 용화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2024년에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와 성공적인 양수발전소 건설에 지금까지 보여주시 것처럼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울릉군, 설 연휴 귀성객 여객선 운임할인

울릉군은 포항~울릉도 항로의 여객선을 운영하는 두 선사의 협조를 받아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울릉군에 6촌 이내 친척을 둔 자)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여객선 운임 할인기간은 설날인 2월 10일을 전후해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 간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울릉군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할인율은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는 전 좌석에 대해 기본운임의 50%를 할인하며, 울릉크루즈(주)의 뉴시디오픈호는 전 객실을 대상으로 기본운임의 30%를 할인한다.

설 연휴 기간에 여객선 운임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귀성객(가족 포함)은 여객선표 예매시스템 또는 선사를 통해 선표를 사전 예매(예약)한 후 울릉군청 누리집에서 귀성객 여객선 운임할인을 신청해야 한다.

울릉군 귀성객 명절 운임할인 사업은 2008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울릉도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약 1만 2천명의 향우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주었으며, 매년 귀성객들의 고향 방문을 장려하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올해도 선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귀성객들의 고향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다"며 "귀성객들이 설 연휴 여객선 운임 할인도 받고, 보고 싶은 가족 만나러 많이 오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윤환 기자

치매극복 기여 장관상 이어... 청송보건의료원 수상 잇따라

청송군보건의료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3년 한 해를 수상으로 가득 채웠다.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난해 암 예방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3년 3월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제16회 암예방의 날 유공 장관표창을 받았다.

또한 지역주민 치매 극복에 기여한 공으로 '2023년도 치매극복의 날 치매 우수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2023년 건강마을조성사업 성과대회에서 경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2023년 의약관리사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부분에서도 우수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 보건사업의 우수성은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영덕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완료

영덕군은 수치지역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완료하면서 군 전체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완료하였다.

세계측지계란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 기준이 되는 측지계를 말하며 좌표계

의 원점이 특정 지역이 아닌 지구 중심을 사용하는 지구중심계 좌표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여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의 측지계다.

영덕군은 2014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2724점의 세계측지계 좌표를 관측하고 2021년 5월 도해 지역 지적공부 16만여 필지의 좌표변환을 지난해 12월에 수치지역 좌표변환을 완료함에 따라 영덕군 전체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됐다.

그 결과로 지난 110년간 사용해 오던 동경측지계의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다.

조여은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언하신 슬로건입니다.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예천

구미시, 예산 2조시대 개막... 구미재창조 시동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나누리 봉사단활동 마무리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추운 겨울철을 맞아 소외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상주시민이 직접 참여go 주도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나누리 봉사단'을 결성해 활동했다.

나누리 봉사단은 상주시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8명이 울겨울 외로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지역 내 소외이웃에게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9일까지 봉사자들의 재능기부와 나눔 봉사를 끝으로 나누리 봉사단의 활동을 마쳤다.

이번 활동은 자원봉사자 주도하에 대상자 선정, 전달 방법, 선물 품목을 논의하는 등 지역 복지 서비스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이경호 기자



김천시 자원봉사센터 성금 200만 원 기탁

김천복지재단은 지난해 12월 29일 김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김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체상을 바꾸는 힘'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입니다라는 전망(비전)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봉사의 가치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정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교통·산업 등 프로젝트 추진 혁신기반과 도시가치 재창조



구미시 산업단지 전경

구미시가 예산 2조시대가 개막됐다. 시는 2024년 새해 시정 목표를 '구미재창조 본격 추진'이라 세우고 구미 미래 50년 성장을 위한 혁신기반을 마련한다.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프로젝트로, 교통인프라의 대전환, 도시 간 연결성 대폭 강화, 경제영토의 확장, 산업생태계 혁신기반 구축, 관광산업 체질개선, 낭만문화도시 구현, 농업의 미래 산업화, 잘 사는 농촌 육성, 사람의 힘으로 도시가치 재창조, 소프트파워 격상 등의 역점시책을 추진해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도시의 성장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높은 접근성이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을 앞두고,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 67호선 개량, 지방도 927호선 개량 등 도로망을 확충해 나감은 물론 KTX-이음 구미역 정차, 대구-경북광역철도 동구미역 신설 등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망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광역교통망 확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핵심 전략산업의 육성도 본격화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선도기술 R&D센터 및 제조 테스트베드 구축 등 반도체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방산 분야에서는 첨단방위산업 진흥센터와 방산특화 개발연구소를 구축·운영해 우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로봇·메타버스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도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가 가진 자연과 문화를 4개 권역(산간·도심권·인동권·낙동강권)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지역 특색을 반영한 축제도 더욱 보완하여 추진하고, 대구모 스포츠대회(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도 개최한다.

농촌의 미래가치를 살리고 농업의 대전환을 이끌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밀산읍 벨리화 시범단지과 들뜰특구 시범운영을 통해 밀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쌀 소비감소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농

촌협약 체결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중심·시민우대 정책을 통해, 정주매력이 높은 구미를 만들어간다.

지역인재를 중심으로 장학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복합거점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난임부부 지원 강화, 출산축하금 확대 등 기본에 충실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

구미시는 대구모 국·도비 사업확보(8914억원)와 공모사업 선정(5052억원)을 이뤄내, 올해 사상 최초로 2조 시대를 열었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재창조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라며, "튼튼한 재정 기반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지정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은진 기자

예천군, 갑진년 새해 힘찬 출발

2024년 시무식 새해 업무 시작

"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하며 경북의 중심도시로 우뚝 성장할 것"

예천군은 2일 공직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시무식 행사에서 김학동 군수와 직원들은 어느 해보다 의미 있게 보낸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군정 방향을 공유했다.

예천군은 지난해 극한의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개관·운영,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4대 마을 선정, 제20회 예천아시아

U20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경영성과 부문 전국 2위, 2023 재난관리평가 행안부장관 표창,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경북도 주관 농정 평가·축산업무·도민안전 시책평가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김학동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 이상생 발전하며 예천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해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예방·대응·지원까지 더 안전한 예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주차타워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신도시와

원도심의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500억 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혁신농업타운 조성, 한우특화센터 건립, 농산물 가공과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자원 발굴과 스포츠 마케팅으로 관광산업을 농업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육·복지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패밀리파크 등 가족 친화 휴식공간 조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제3농공단지 조성,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욱 기자



김천 구성면, 모성산 해맞이 행사

김천시 구성면은 1일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구성면민의 무사안녕과 화합을 위한 해맞이 행사를 추진했다.

구성면 기관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구성면 각 기관단체와 이장협의회,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른 새벽 모성산 정상에 오른 주민들은 이상욱 김천시의회의원의 축문 낭독을 시작으로 김천시와 구성면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진행하고 새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으며 일출을 감상했다.

구성면 행정복지센터 전정에서는 생활개선회에서 준비한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2024년 새해 첫날,면민들이 함께 행복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해정 구성면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구성면이 주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면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구미, 새해 첫날 현장 챙겨

김장호 구미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인구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를 방문했다.

새해 첫날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연휴에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 수고가 많은 의료진을 격려했다.

민선 8기 최우선 공약사업으로 개소 1주년이 된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의 육아정책 성공사례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미시만의 특화된 공공차원의 소아진료체계를 구축해 월평균 750여명, 연간 8800여명이 이용한다.

특히 인근 지역의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격차 감소를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더 촘촘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미시는 인구 정책으로 '24년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출생순위당 50만원 ~ 100만원 증액 지원하며, 구미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 운영, 임신·출산 카카오톡 채널 운영, 난임부부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저출산 분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다자녀 지원 시책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2022년 11월 경북 최초 다둥이 모바일 앱을 출시한 이후 관내 공공시설 및 400여개의 다둥이 가맹점을 발굴하여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무료, 세자녀 이상 가정 상수도요금 할인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다자녀 가정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더 크고 더 희망찬 구미시대'를 열기 위해,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촘촘한 복지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Advertisement for Sangju City K-Battery projec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attery and a car, with text: 'K-배터리의 미래를 충전하다 경상북도 상주', '미래산업을 움직이는 이차전지의 중심! 경상북도 상주 K-배터리 허브 도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충전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그룹포텐 1조 원 투자유치', 'SK에코플랜트와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위한 MOU 체결', '(주)아바코와 300억 원 투자 MOU 체결', '상주시 SANGJU CITY'.

안동 영주 봉화 의성

박남서 영주시장은 3일 오전 그랜드컨벤션에서 열리는 2024년 영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봉화,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봉화군에서 지난 1일부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이 시작됐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봉화군민은 물론 봉화를 방문한 관광객 등 누구나 봉화군 농어촌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단, 무료 이용은 봉화군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노선에만 해당된다.

인근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주~봉화·물야-재산(영주여객 33·55번), 영양-재산(영양동행버스), 태백-석포(영양고속), 안동-재산·명호(경안여객) 노선과 시외버스는 제외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라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안동소방서장 호국영령에 참배

안동소방서의 첫 일정은 안동 중훈탑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로 2024년을 시작했다.

지난 1일 제37대 안동소방서장으로 취임한 김난희 소방서장은 중훈탑 참배 후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한 한해를 기원하고자 '2024년 안동소방서 시무식' 행사를 가졌다.

오후는 안동중앙신시장을 방문해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시장 관계자 업무 협의 등의 일정을 추진했다.

시무식에 참석한 김난희 소방서장은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우리의 역할 대신할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지역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

이번 안동소방서장으로 취임한 김난희 소방서장은 '94년 6월 처음 임용돼 ▲경북소방본부 초대 구급상황관리센터장 ▲소방청119구급과 정책 및 품질계장 ▲경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구급품질팀장 ▲경북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 ▲제4대 예천소방서장 등 현장과 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바가 있다. 최준길 기자

안동시, 문체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문화도시13곳 중 경북 유일 3년간 최대 200억 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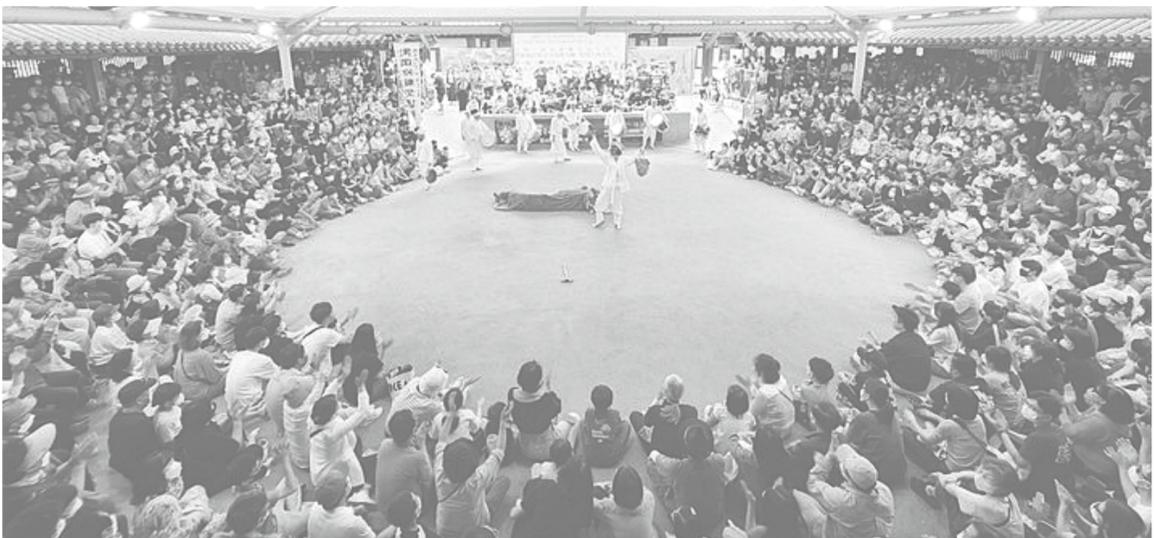
안동시가 지난해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대상지'로 최종 승인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중심 문화 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2025~2027)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문체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은 광역시권 2곳, 경기권 1곳, 충청권 3곳, 강원권 1곳, 경상권 3곳, 전라권 3곳 등 7개 권역 총 13개 지자체이며 그 중 안동은 경북 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안동시는 한국의 유교·정신 문화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해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K-전통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한 점과 낙동강문화벨트, 유교문화권 등 경북권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4년에 본 사업에 앞서 예비사업을 1

년간 추진하고 2024년 연말 문체부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은 후 오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만이 가진 전통문화콘

텐츠를 역동적인 대중문화로 확대·재생산시키고 K-전통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여, 안동이 K-전통의 글로벌 관문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밝혔다. 최준길 기자

김주수 의성군수, 수도선부의 마음으로 행복한 의성 만든다

(水到船浮)

의성 관광 새로운 전기 마련 공직자 기본자세 충실 중점

의성군은 2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지난 2023년 국정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 2024년 새롭게 도약하는 의성군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수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대구 경북 신

공항 건설과 함께 새로운 미래설계 ▲세포배양산업과 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확장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행복의성 구현 ▲일상이 안전한 삶의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디지털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국가지질공원 인증, 성남공장 문화재생산업 등 의성 관광의 새로운 전기 마련 등의 계획을 강조함과 더불어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충실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라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뜬다"라며, "실력을 쌓아서 경지에 다다르면 일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만큼 미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들을 멈추지 않고 한 발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1년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대통령 상 수상을 비롯해 다양한 국도정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변화와 혁신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행정 체계를 구축해 군민 모두가 하나되는 의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의성 하천사업 평가 군부 최우수상

의성군은 경북도에서 실시한 '2023년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 하천에 대한 하천 점·사용료 징수율, 하천사업 추진실적, 안전관리, 추진 우수사례 등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군은 넓은 면적에 하천이 많고 연장이 길어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미정비된 하천개수, 제방 폐해, 퇴적도 준설, 유수지정목 제거 등 하천 유지관리와 군 예산을 투입해 지방하천 수위 관측 시설을 구축하는 우수사례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의성군은 이번 7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자원봉사자와 복구용 장비를 지원하는 등 하천분야 도정에 기여했다.

우수사례인 지방하천 수위관측시설 구축 사업은 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시 하천 주변 상황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험징후 발생 전 신속한 주민대피와 상황판단으로 인명피해 예방과 주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5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하천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박재성 기자

"시민의 행복과 안녕 기원"...영주시, 갑진년 해맞이 행사

철탄산 성재에 시민 1000여명 참석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건설 노력

영주시는 1일 철탄산 성재에서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갑진년 신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주시 새마을회가 주관했다.

소백풍물의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희망의 함성, 새해 희망 소원지 작성, 떡국나눔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0년 1월 1일 개최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해맞이 행사는 모처럼 만에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풍물공연 등 해맞이 개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큰 활기를 띠었으며, 시민들이 화합하고 새해 결의를 다지는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행사를 주관한 영주시 새마을회의 홍수성 회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시민들이 화합하는 행사에 봉사할 수 있어 새마을회 회원들 모두 보람을 느낀다"며, "새해에도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발전하는 새마을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남서 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큰 응원과 격려를 받아 감사하다"며, "갑진년 새해에도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전성기 기자

봉화군 우곡2리 권혁로 이장 대통령 표창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봉화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수여식에서 봉성면 우곡2리 권혁로 이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은 지난해 6~7월 집중호우 시 인명 보호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공적이 뛰어난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혁로 이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난해 7월 14일 금요일 새벽 마을 뒷산에서 큰 바위가 구르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마을안길로 흘러드는 물길을 보고 급히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 등 10가구 16명의 주민들을 깨워 경로당으로 신속히 대피시켰다. 대피 1시간 후 산사태가 발생해 조금만 늦었더

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신속한 대처로 막을 수 있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권혁로 이장은 "이장으로 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호우 때 재난 대응에 노력하셨던 다른 시군의 이장님들을 대표해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상을 주신 것 같아 2024년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상 소식을 들은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 대표로 권혁로 이장님이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봉화군 모든 읍면에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하 인사말을 건넸다. 전성기 기자

영주시, 제6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후보자 공개모집

최고의 선비 2월 29일까지 추천

영주시는 제6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 후보자를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한민국 선비대상은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에 근거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학술연구 또는 선비사상 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추천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및 재외국민, 외국

인을 포함해 선비정신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로 추천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 2년제 이상 대학 총·학장, 법인대표 및 단체장 등이다.

접수기간은 2일부터 2월 29일까지로 추천서, 동의서 등 소정의 양식을 구비해 공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식은 영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수상자는 대한민국 선비대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세근)에서 접수 후 후보자에 대해 서류심사,

현실조사, 본심사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한다. 시상식은 5월, 한국선비문화축제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1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정세근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표 정신가치인 선비정신을 세계인의 정신으로 실천하고 승화하는데 기여한 개인 및 단체는 대한민국 선비대상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선비정신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안동 계약원가심사 30억여 원 예산절감

안동시가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봤다.

시는 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총 314건 1,034억 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30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원가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발주 전에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로, 예산 집행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2.96%로, 분야별 절감액은 공사 121건 23억5800만 원, 용역 134건 6억4800만 원, 물품구매 59건 5900만 원이다.

예산 절감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수량 및 비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된 보양, 노임·품셈 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이다.

권용호 공보감사실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예방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길 기자

Opinion

신문이 달라지면 신문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보의 독자 의견까지 생략합니다.

대구광역시보

www.dgy.co.kr
등록번호(일간)
대구가 00016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발행인 김명숙
편집인 김성웅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

한문의 힘은 곧 '국력'이다

김 문학

일중한국제문화연구원장



동아시아 근대사 중 왜 일본이 숭선 근대화 성공했을까. 이는 오늘날까지도 매력적인 연구과제이다.

흔히 일본의 성공을 졸속히 서양을 따라 배우는데 누구보다 아선 '원숭이 흉내'라고 감성적 인식으로 일축하려 한다.

이런 인식 자체에 큰 결함이 있다.

여기에는 왜 일본만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지 하는 원인, 배경 규명이 감성적 인식으로 대신해버렸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성적 인식으로 편향돼, 사실 한국, 중국의 일본연구, 인식은 방대한 연구시설과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성적, 정서적 내지 정치적 차원에서 담보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점은 심히 안타깝다.

언필칭 '원숭이 흉내'라는 표현으로 일본을 감성적으로 비하하려는 경조한 태도가 이미 일본의 심층인식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스스로 설치한 셈이 된다.

필자가 근대사를 읽으면서 발견된 근대 일본은 결코 '원숭이 흉내'라는 말로 일축시킬 수 없는 유연한 문화력이 구비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일본의 한문의 소양이 이미 백여년 전인 에도시대 말기에 서민에 이르기까지 보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필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충격이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숭선 근대화에 성공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에도시대에 한문의 소양을 습득한 데 있었다.

즉 환원하면 한문의 힘이 국력으로 되어서 양 근대문명을 수용할 토대가 이미 중국이나 조선보다 널리 비치돼 있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내실에 대해 좀더 상세히 고찰하기로 하자.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이라는 말이 정시하다시피 한문은 동양의 세계였다.

한문은 하나의 불가결의 교양이었으며 그 자체가 전근대 아시아를 지배한 고위 언어였

다. 한문으로 중국인,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도 필담으로도 의사소통이 잘되었던 것이다. 한자가 일본으로 유입된 것은 2천년 전 일본의 야요이 시대였다.

아마도 민족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개념은 한어를 통해 완성되었으며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를 거쳐 막말, 메이지에 이르러 한문은 일본 문명에 기적적인 고도성장을 가져다 준다.

일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토 민족은 6세기 경에 한자, 한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근근히 200년 사이에 고도성장을 이루어 8세기에는 '일본인'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한문은 훈독법으로 읽는 방법을 창설하여 일본식으로 한문을 해독했다.

이는 한자문화권에서는 미증유의 방법이다. 일본 메이지대학의 문학연구자 가토 도오루 교수는 일본의 한자문화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한자를 '외국문자'로 보지 않았다. 2. 한자에 음독과 훈독으로 읽는 법을 만들었다.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한자는 음독뿐이다.
3. 하나의 한자의 독법이 복수로 다양했다.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한자는 일자일음이 원칙이었는데 말이다.
4. 한자를 토대로 일찍이 민족 고유의 문자를 창조했다.

가나의 발명은 한반도의 한글이나 베트남의 문자보다 빨랐다. 5. 중국에 한어를 역수출하여 '은혜갚기'를 한 유일한 외국이다. 즉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이 만든 '신한어'는 현대 중국에서도 보급되고 있다. (가토 도오루, '한문의 소양')

일본무사라 하면 아만인으로 간주하기가 십상이지만 에도 시대의 한문 붐에 의해 일본의 무사는 중국이나 조선의 사대부, 선비 못지 않은 문화적 교양인이 되었다.

에도 시대에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에서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문화교류를 했을 때, 조선통신사들은 유교의식으로 일본을 아만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그들까지도 당시 일본의 출판업 호

황과 한적 출판물의 풍부함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조선에는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상류 지식인에 제한돼 있었다.

일본처럼 한문훈독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한문을 읽을 수 없었던 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것이 일본과 조선 한문 독법의 차이였으며 결국 조선이 근대에서 일본에게 뒤지는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

조선의 식자층이 넓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일본의 지식인은 해외정보를 열심히 수집하고 조선과 중국에서 수입한 한문 서적을 탐독하여 흡수했으며 중국 청나라 내부에서 금지된 서적도 일본에서는 일반인을 향해 팔고 있었다.

명말청초 청군이 한국을 확실한 기록서 '양주10일기'나 '가정도성기략'은 청나라의 금서였지만 일본에서는 공개출판돼 널리 읽혔다.

그 뒤 일본 유학을 온 노신은 이 두 책을 접하고 인쇄하여 중국으로 보냈다고도 한다. 이 두 책은 '명만홍향'의 기록으로 되기도 한다.

에도 시대의 한문 붐은 일본을 넘어서 동아시아 근대사에 큰 영향을 준다. 청국에도 없는 중국 고전서적이 일본에서 남아 잘 보존, 보급돼 있었기에 근대 중국 지식인들은 일본에서 중국의 귀중한 서적을 사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일본에서 발견되는 중국문화'라고 이들은 표현하기도 했다.

에도시대 한문 문화의 중심으로 된 것은 무사계급과 보통 백성 정인이었다. 그러나 막말이나 메이지에 이르러 무사나 정인만 아니라 농민까지도 한문을 배우게 된다.

1860년대 일본의 식자율은 54%로 세계 1위였다고 한다. 하급무사는 물론 야쿠자나 농민마저 한문을 장악하고 읽을 수 있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에도시대에 이미 '에도 문명 시스템'이란 문명이 형성됐으며 풍부한 한문소양으로 서양의 문명충격을 흡수할 문화풍토가 마련돼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한문의 힘을 국력으로 바꿀 수 있는 유니크한 힘'이었다.

필자는 일본 근대 성공의 단순히 메이지유신보다도 그 앞서 전근대 에도 시기에 이미 한문의 풍토로 근대화를 맞이할 힘이 양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연구를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레 82.5cm(32.5인치)로 가장 두꺼웠다. 남성 30대가 86.8cm(34.2인치)로 가장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 비만을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비만학회가 질병관리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1.3배 높은 증가세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탄수화물 섭취 제한 등을 추천했다.

오늘의 여론

與 韓동훈 "이재명 피습 전말 밝혀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흥기를 든 국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피습 소식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다"라며 "수사 당국은 전말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절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그에게 병원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를 방문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하자 그는 "제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고 싶다"라면서, "다만 이런 상황에서 방문하는 게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치료 상황을 보고 맞춰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진 신년 인사회에서 "어두운 야기기 한번 하겠다"라며 "야당 대표가 백주대낮에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밤급 전 이재명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는 뉴스를 봤다"라며 "수사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의힘이야말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굳건히 하기 위하여,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모두가 요구하는 것, 또 흔들리지 않는 것, 마치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이 동료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며 "우리 사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라고 전했다.

같은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순회 일정 중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흉기에 의한 왼쪽 목 부위 피습을 당해 병원에 긴급이 대피하는 출혈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저연차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저연차 및 실무직 공무원 및 재난대응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자녀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했다.

우수한 인재가 임용 때문에 공직을 떠나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정부는 밝혔다.

수당은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우수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투자할 가치 있는 지역, 기업 살리는 지역, 기업할 만한, 기업할 맛 나는

경상북도에서 기업의 꿈을 펼쳐보세요

문의 | 054-880-4612 홈페이지 | invest.gb.go.kr

- 의료·바이오
- 기계·철강
- 이차전지
- 탄소섬유
- 원자력수소
- 바이오2 일반산업단지
-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 고아 제2농공단지
- 4 일반산업단지
-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 융합기술 산업지구
-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 경안 일반산업단지
- SMR 국가산업단지
- 명계3 일반산업단지
- 자동차부품
-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 스마트팜
- 전자부품
- SMR

꿈나무육성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100만원 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 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협찬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시상내역

-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일반부 -신페리오
 - 남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 여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 남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여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남·여 3위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남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여 트로피·드라이버
 - 니어리스트 남·여 트로피·퍼터
 - 이글상, 최다 버디, 파, 보기 더블파 각 상품 지급

참가규모 88팀(학생부 포함 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0일 (입금자 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행사 장소 : 경주더케이 호텔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김영숙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참가신청입금 후 환불 주)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선수등록 확인 관계로 9시 30분까지 골프장 도착

